

6월은 보광의 달

“우리의 구원 위해 보광하신 큰 사랑 깊이 깨닫자”

普光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는 여러 단계와 고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조희성 선생이 구세주가 맞는지 이해하는 단계이다. 진실로 조희성 선생이 구세주가 맞는지 경전적(經典的), 예언서적(豫言書的), 과학적, 이치적으로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 당신이 인류의 구세주가 맞다고 고백하는 것이 첫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조희성 구세주가 나의 구세주가 틀림없다고 체험하는 단계이다. 구세주라면 뭐니뭐니 해도 죄를 담당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나의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말씀이 좋고,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부리더라도 구세주 자격에는 미달이다.

세 번째 단계는 구세주에게 자신을 맡기는 단계이다. 온전한 믿음은 맡김이다. 구세주라고 믿어줘야 자신을 맡기게 되어 있다. 맡기는 단계는 그야말로 수십 수백 단계로 쪼개져 나아간다. 처음에는 몸을 맡긴 것을 맡겼다고 생각하는 낮은 차원의 맡김도 있다. 맡기는 단계가 깊어지면 자신의 생명과 몸과 마음 전체를 맡기게 된다.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에게 속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지체가 되므로 자신이 하나님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다.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역사(役事)하실 때 분신(分身)의 권능을 베풀어 당신이 진정한 구세주임을 보여주셨다. 공산주의를 없앴으며, 한 국에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고, 종년 들게 하고, 장마 못 지게 하였고, 남북 전쟁이 일어날 수 없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세주를 따랐던 많은 신도들이 반신반의하여 구세주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천지공사에 전력을 투구하여 조력하지 않았다. 더욱이 구세주를 따랐던 먼저 나온 자(성입자)들이 구세주를 모함 모략하기까지 하여 무고한 옥고(獄苦)를 치르게 하

였으니 인류를 구원하려는 구세주의 발목을 붙잡아도 보통 붙잡은 격이 아니었다.

구세주께서 하신 인류 구원 사업의 과정을 돌아켜 보건대 구세주께서는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고 험한 수백 수 천 개의 험산준령과 가시밭길을 넘으셨던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견디기 어려웠던 순간을 다 이기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급기야 자신을 희생하여 보광의 길로 가신 참사랑의 구세주를 우리는 6월에 깊이같이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할 것이다.*

대전제단 이영자 총재 초청 예배 성황

“자유율법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갈고 닦는 일이 성도의 제일가는 의무이다”

대전제단(책임승사 원경재)은 5월 24일 이영자 총재를 초청하여 예배를 보았다.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1부 비디오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영생의 확신의 마음이며, 희생적인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인류가 하나가 된다. 하나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가 되는 비결은 자유율법안에 있다. 자유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2부 순서에는 해동 김덕희 여청이 제작한 '말씀으로 배우는 구원론' 동영상상을 시청하였다. 구세주의 얼굴을 새기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물질로 변화되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완벽한 말씀이라 성도들이 동영상상을 시청하면서 감탄을 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영자 총재 말씀'은 “지난 3월 진주에 떨어진 운석을 두고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운석의 가격에 있었지만 우리 선조들은 운석이 떨어지면 ‘하늘의 심판’ 또는 ‘하늘의 조짐’이라 하여 이를 풀기 위해서 <해괴제단 천제(天祭)를 지냈다>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또한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승리제단 성도들이 자유율법을 잘 지키게 이끌어야 하는 총재로서의 책임



대전제단 예배 볼 때 육각형 모양의 이슬이 찍혔다(신순이 부장 촬영)

을 다했나 냉정하게 돌아보고, 부족한 점이 느껴져 총재로서 처음 임명되었던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반성하였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라는 대재앙을 불러온 화의 근원을 저를 선두로 해서 승리제단 성도들이 세상의 마귀를 수용할 만큼 자유율법을 철저히 실천하지 못함에서 왔다”고 이 총재는 자기 반성의 메시지를 여러 번 강조하며 말했다.

이 총재 말씀 요약

세월호 대참사를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자유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반성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았다. 주님은 살아 움직이는

승리제단 성도님을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마귀의 시험이 오더라도 반드시 자유율법을 지켜서 마귀세력을 꺾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못함으로 마귀 영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 공격을 허락하는 순간, 성도들의 흐트러진 심령상태가 화근이 되어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승리제단 진리 중 하나는 인과응보이다. 하늘이 운석을 떨어뜨려 징벌의 조짐을 보이고자 했다면 그 징벌은 막연한 일반인들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눈치 채고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반성하여 공구수성(功具修省) 주역에 나오는 말로 몹시 두려워하며 수양하고 반성한다는 뜻) 할 수 있는 마

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에게 내려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인간세상을 주관하고 이끄는 최고의 군주나 백성을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의 대통령이나 최고 통치자 그리고 그 국민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영의 세계가 그대로 물질 세계에 반영되는 바, 우주의 통치권을 쥐고 있는 이긴자 구세주의 존재를 알고, 장차 이긴자 구세주로서의 대업을 물려받게 될 승리제단 성도님들이야말로 최고의 군주이자 백성이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은 너무나 엄중하여 무량대수분의 일만큼의 자존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가는 주범인 자존심이라는 마귀를 완벽하게 없애기 위해 우리는 자유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있다. 승리제단은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곳이다. 오직 이긴자 구세주의 말씀과 율법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스스로 홀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다른 신앙의 형제들에게 가르치고자 훈계할 필요도 없으며, 배움을 청할 이유도 없다. 오직 이긴자 구세주 한 분의 말씀과 걸어오신 길을 쫓아만 살고 묵묵히 앞만 바라보며 마지막 완성의 순간까지 뼈를 깎는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37)

“마귀 왕을 하야(下野)시키는 반대생활”

여러분들에게 반대생활을 해야 이기신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논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좁은 길인 영생하는 길은 반대생활을 하는 길밖에 없어요. 반대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못 가요. 반대생활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지, 그래야 하나님이 되는 거지, 반대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결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천당 가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천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해야 되고, 일하기 싫으면 일을 해야 되고, 힘들어서 쉬고 싶으면 안 쉬어야 되고, 이러한 반대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승리한 하나님이 되어서 영생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생활이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얼마나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 반대생활은 참으로 인간은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갈 수 없는 길이지만 반대생활을 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죄 짓는 행동, 마귀의 행동을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마귀는 6천 년간 누리던 왕의 자리에서 하야(下野)*하여 마귀 육에 갇혀 있던 하나님의 영이 왕의 자리를 도로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하야(下野): 관직에서 물러남

말씀 요절을 육비에 새기도록 암송합시다!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

우리 제단에 새식구가 오게 되면 매우 좋은 일이긴 하나 기존 식구들에게는 또 하나의 시험이 치러진다. 새식구에게 들어있는 마귀가 뽕뽕 풀려나와 기존 식구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식구만 오면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편에는 주님을 위하고 제단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할지 모르나 자유율법에는 걸리는 일이다. 하나님(부처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큰 소리를 내거나 혈기를 부리지는 않는다.

한 사람에게 들어있는 마귀가 몇 마리가 되는지 아는가? 무량대수(無量大數) 깨다. 무량대수(無量大數)란 글자 그대로 셀 수 없이 많은 수라는 뜻이다.

불교권의 세계에서는 무량대수를 숫자로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0의 68제곱이다. 그 이상의 수는 심무량대수, 백무량대수, 천무량대수 등등 이렇게 10제곱으로 올라간다. 무량대수의 아랫 수는 불가사의(不可思議)인데 10의 64제곱이다. 10의 60제곱은 나유타(那由他), 10의 56제곱은 아승기(阿僧祇)다.

승리제단은 마귀를 죽이는 장소다.

구세주의 영이 마귀를 가루도 존재도 없이 박멸소탕 해버린다.

그러다보니 새식구 속에 들어있던 마귀가 안 죽으려고 기존 식구들 속으로 들어가는데 기존 식구가 자신 속에 들어온 마귀를 못 이기게 되면 큰 소리를 내거나, 혈기를 부리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등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제단이 발전하느냐 못하느냐 여부는 바로 기존 식구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식구가 어떤 마귀를 쏟아내더라도 그 마귀를 가볍게 처리해 낼 수 있는 의인들이 많아지면 발전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마귀에게 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부처님)이 되는 이 길은 자신과 싸우는 길이지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구세주께서는 “남이야 전봇대로 이빨을 쏘 시킨 말전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다. 자신 속의 마귀와 결전을 벌이기도 바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에 눈에 띄는 나쁜 것이다.

묵묵히 자신에게 들어온 마귀를 감당해 이겨내는 많은 의인들이 나오기를 구세주는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다.*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종교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대전제단 예배 때(5.24) 내린 이슬성신 / 신순이 부장 촬영



대전제단 예배 때(5.24) 내린 이슬성신 / 신순이 부장 촬영



대전제단 예배 때(5.24) 내린 이슬성신 / 신순이 부장 촬영